

프로야구는 U+로 봅니다
아파-인능 U+ 프로야구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ONE스토어 /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 U+ 프로야구 검색

기운 빠진 호랑이 “집 밖은 위험해”

KIA, 주말 kt 3연전 1승 2패 등 원정 4승 10패

타선·마운드·수비·경기 운용 등 총체적 난국



원정팬을 울리는 ‘호랑이 군단’이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3-5패를 당했다. KIA는 kt와의 주말 3연전을 한승혁의 호투로 열었지만 팻딘이 선발로 나왔던 전날 2-9패에 이어 루징 시리즈로 돌아섰다. 이날 패배로 KIA의 올 시즌 원정경기 승률은 0.286까지 떨어졌다. LG를 상대로 한 시즌 첫 원정경기에서 1승 2패, 문학에서 1승 1패, 대전 싸움이 3연패, 두산 잠실전에 이어 다시 한번 루징시리즈를 남기며 원정경기 전적은 4승 10패가 됐다.

패배보다 아쉬운 것은 경기 내용이었다. 지난 27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10안타 3볼넷으로 1득점에 그치며 양현종의 완투패를 자초했던 타선이 29일에도 10안타, 1볼넷으로 겨우 2점을 만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병살타가 쌓였다. 1회 선취득점에 성공했지만 상대 실책이 발판이 된 3회 1사 만루에서 최형우의 타구가 2루수로 향했고, 병살타가 됐다. 앞선 2회에는 1사 2루에서 나지완의 직선타 때 스타트를 끊은 주자 이영욱까지 동시에 아웃되는 등 야수들의 집중력이 아쉬웠다.

29일에도 타선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 전날 아쉬운 병살타를 날렸던 최형우가 이날 3안타 행진은 했지만 모두 주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벤치의 전력 배치도 아쉬웠다. KIA는 이날 서동욱을 3루수로 선발 투입했다. 그러나 3회 1사에서 서동욱의 실책이 나왔고, 2사에서 박경수의 투런포가 터졌다. 실책이 빌미가 된 홈런으로 임기영의 자책점은 남지 않았다. 이후 KIA는 4회 황윤호를 대수비로 넣으면서 야수가 드 하나를 일찍 버렸다.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던 8회도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

1-4로 뒤진 8회초 kt 선발 니퍼트가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선두타자 김선빈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버나디나가 우전안

타로 분위기를 살렸다. 이명기의 강한 타구가 유격수 내야안타가 됐다.

그러자 kt가 107개의 공을 던진 니퍼트를 내리고 볼펜을 가동했다. 두 번째 투수 이상화의 제구 난조로 연속 볼넷 뒤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3-4까지 점수 차가 좁아졌다. 1사 만루 기회가 계속됐고, 투수가 심재민으로 바뀌었다.

4회 대수비로 들어가 7회 첫 타석에서 초구에 안타를 때리며 타점을 올렸던 황윤호가 타석에 섰다. 초구 볼을 지켜본 황윤호가 파울을 기록하자 정성훈이 대타로 투입됐다. 그러나 1볼 1스트라이크에서 타석에 선 정성훈은 두 개의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뒤 삼진으로 물러났다. 최정민을 대신해 타석에 나온 백용환도 풀카운트 승부 끝에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KIA는 상대가 차려준 밥상을 건어냈다.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협살 장면에서는 수비 약점을 노출했다.

KIA 선발 임기영이 3회 박경수에 이어 6회 로하스에게 투런을 허용하면서 0-4로 뒤진 7회말. 임기영에 이어 등판한 김운동이 선두타자 박기혁에게 중전안타를 내줬다. 그리고 투수 땅볼 때 수비가 느슨한 틈을 노려 1루에 있던 박기혁이 3루까지 향했다. 이어 다시 투수 앞 땅볼이 나왔고, 스타트를 끊은 박기혁이 협살에 걸렸다. 하지만 3루수-포수-유격수-3루수로 이어진 태그 과정에서 KIA 야수진은 타자주자 심우준에게 3루까지 내줬다. 김운동이 강백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속제를 남긴 장면이었다.

불펜의 ‘한방’도 치명적이었다. 28일 임기영이 로하스에게 허용한 만루포와 29일 마무리 김세현이 맞은 유한준의 솔로포는 승부의 추를 kt로 기울게 한 결정타가 됐다.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없었던 주말, 3루 관중석과 외야를 가득 채우며 이를 연속 위즈파크의 매진 행렬에 동참했던 KIA 팬들은 허탈한 루징시리즈를 지켜보며 쓸쓸히 퇴장했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기소침 29일 오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 경기 6회말 2사 2루에서 kt 로하스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한 KIA 선발 임기영이 아쉬워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범호·안치홍 복귀 “부산으로 갑니다”

최형우 “지명타자보다 수비하는 게 낫죠”

덕아웃 T 특특

▲이제 좀 실감 나오 = 한승혁은 지난 27일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화제의 이름이 됐다. 이날 kt 오태곤에게 솔로포는 허용했지만 6이닝 4피안타(1피홈런) 1볼넷 4탈삼진 2실점의 호투로 8-3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전날 양현종의 완투패가 나오면서 침체한 팀의 분위기를 띄운 값진 호투였다. “승리투수가 되고 나서 생각보다는 덤뻐했다”는 한승혁은 28일 “경기장에 나오는데 팬들이 반겨 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셨다. 내가 전날 좋은 경기를 했다는 게 이제 좀 실감 난다”고 웃었다. 한승혁은 또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아직 쑥스럽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kt와의 경기에서는 슬라이더가 좋아서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구가 힘겨워 들어가지 못하고 팔려들어가면서 상대 방망이에 걸리는 모습이었다. 이런 부분 더 신경 쓰고 꾸준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부산으로 갑니다 = 이범호와 안치홍이 돌아온다. 공에 맞아 나란히 전력에서 이탈했던 이범호와 안치홍이 동반 복귀를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8일 kt와의 3군 경기에서 부상 후 첫 실전을 소화한 뒤 29일에는 두산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점검을 끝냈다. 3번 타자 겸 3루수로 나

온 이범호는 세 타석에 나와 2루타 포함한 멀티히트와 함께 1볼넷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안치홍은 1번 타자 겸 2루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의 성적을 냈다. 이날 경기 전 김기태 감독은 “퓨처스리그 경기 결과 별 이상이 없다면 두 선수가 부산으로 이동할 것이다”고 언급했고, 두 사람은 5회가 끝난 뒤 수원으로 이동해 1군 선수들과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한편 윤석민도 지난 28일 3군 연습경기에서 첫 피칭을 했다. 이날 윤석민은 2이닝 동안 29개의 공을 던지면서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나가 있는 게 더 낫죠 = 지명타자로 하루 수비를 쉬어갔던 최형우가 29일 좌익수 자리로 복귀했다. KIA는 28일 지명타자 자리에 나지완 대신 최형우를 투입했다. 그리고 최형우가 서 있던 좌익수 자리에는 이영욱을 넣었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지명타자로 출전한 최형우는 1회 희생플라이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1사 만루의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하는 등 무안타로 돌아섰다. 이영욱도 3타수 무안타 1삼진. 29일 좌익수로 복귀한 최형우는 “체력적으로 힘들 때 한 번씩 수비 쉬어가는 게 좋지만 수비 나가서 뛰는 게 경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형우는 수비까지 소화한 29일에는 3안타 1볼넷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로 웃지 못했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

위즈파크, KIA 팬 이리 많은데...

kt 창단 후 13번째 매진...9경기가 KIA전

위즈파크의 반가운 손님, KIA 타이거즈다.

KIA는 전국에 팬들을 몰고 다니는 인기 구단이다. 수원 원정길도 예외는 아니다.

KIA가 시즌 첫 수원 원정에 나선 지난 27일 kt의 안방인 위즈파크에는 1만 4901명이 찾았다. 올 시즌 위즈파크 평균관중 9700명을 훌쩍 뛰어넘는 구름 관중이었다. 그리고 28일에는 경기 시작 후 1시간여 만에 준비된 2만800석이 모두 팔려나갔다. kt의 시즌 첫 매진이었다.

29일에도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이날 오후 2시 56분 전반에 이어 다시 한번 매진이 기록됐다.

이날 매진은 kt 창단 후 13번째 기록이었다. 이 중 9경기의 상대가 KIA였다.

2015년 7월 4일 수원의 만원 관중 앞에서 경기를 치렀던 KIA는 2016시즌에는 9월 10일과 9월 25일 위즈파크 매진 사례에 힘을 보탤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kt의 4차례 매



지난 28일에 이어 29일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가 열린 수원 위즈파크 관중석이 이를 연속 가득 찼다. 사진은 28일 만원 관중이 들어선 경기장 전경. <kt 제공>

진 경기를 모두 함께했다.

7월 8일 경기 이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시즌 마지막 시리즈로 전개됐던 3연전에서 매진 사례가 이뤄졌다. 특히

KIA는 3연전 마지막날이었던 10월 3일 두산의 끈질긴 추격을 물리치고 만원 관중 앞에서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

추신수 3안타 3타점

‘추추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3안타 3타점으로 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29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방문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7-4 승리를 이끌었다.

1회초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 3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아웃됐지만 4회초 행운의 2루타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추신수는 3-0으로 앞선 2사 2-3루에 등장, 하이메 가르시아의 3구를 때려 좌중간 방향으로 타구를 보냈다. 이때 토론토도 좌익수 커티스 그랜더슨과 중견수 케빈 필라 사이에 콜 플레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타구는 그대로 그라운드에 떨어졌다. 그사이 주자 2명이 모두 홈을 밟았고, 추신수는 2루까지 진루했다.

추신수는 7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내야를 깔끔하게 통과하는 중전안타로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달성했다.

9회초 1사 2루에서는 우익수 앞으로 타구를 보내 7-3으로 달아나는 3타점째를 올렸다. 이번 시즌 첫 3타점 경기다. 추신수가 한 경기에서 3안타 3타점을 올린 건 통산 20번째이며, 이 경기에서 팀은 19승 1패로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학강초 초등야구 우승

학강초가 2018 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 팀이 됐다.

학강초는 최근 분당구장에서 열린 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3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우승팀 수창초를 포함한 7개 야구팀이 토너먼트로 대결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학강초는 첫 상대 화정초를 5-1로 이긴 뒤, 서석초는 2-1로 꺾었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날 수창초와 승부치기 승부 끝에 9-8로 승리하면서 3연승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시상내역

- ▲우승:학강초 ▲준우승:수창초 ▲최우수선수상 ▲김운석(학강초) ▲우수투수상:노도현(학강초) ▲타격상:양우석(0.857·7타수6안타·학강초) ▲최다루상:김세현(4개·수창초) ▲최다타점상:박성하(5타점·학강초) ▲감독상:최현규(수창초) ▲미기상: 위종민(학강초) ▲감독상:최태영(학강초) ▲지도상:이관(학강초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현 BMW 오픈 4번 시드 1회전 부전승...16강 진출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19위·한국 체대)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MW오픈(총상금 50만1천45유로)에서 4번 시드를 받았다.

정현은 30일 독일 뮌헨에서 개막하는 이 대회 단식 본선에서 4번 시드를 받고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 16강에 곧바로 진출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4강까지 오른 정현은 2회전에서 미카일 쿠쿠슈킨(95위·카자흐스탄)-마티아스 바칭거(164위·독일) 경기 승자를 상대한다.

클레이코트 대회인 BMW오픈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3위·독일)가 톱 시드를 받았고,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구(15위·스페인)이 2번 시드에 배정됐다. 3번 시드는 디에고 슈바르츠만(17위·아르헨티나)이다.

정현이 8강에 오르면 가엘 몽피스(41위·프랑스)와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4강까지 가면 톱 시드의 즈베레프를 상대할 수 있는 대진표다.

／연합뉴스